

# 올해 친환경선박 전환에 2,422억 원 투입,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적극 대응한다

- 친환경선박 45척 건조 및 30척 개조 등 친환경선박 보급시행계획 확정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'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·보급 기본계획(2021~2030)'에 따라 '2024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'을 수립하여 1월 30일(화) 고시하였다.

2024년 보급 시행계획에 따라, 올해 정부와 지자체,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친환경선박 보급을 위해 약 2,422억 원(국비 1,859억 원, 지방비 등 563억 원)을 투입한다.

공공부문은 총 48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할 계획이며, 이 중 28척은 전기추진선박이나 하이브리드 선박 등 친환경선박으로 건조하고,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며 비교적 최근에 건조되어 선령이 낮은 선박 20척은 대기오염 물질 저감장치(DPF\*)를 설치하여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.

\* DPF(Diesel Particulate Filter) : 선박에서 배출하는 경유엔진의 배기가스 중 입자상 물질을 필터로 거른 후 제거하는 장치

민간부문에는 총 17척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고, 추가로 10척의 선박에 대해 친환경 설비 설치 시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.

아울러, 연료공급 시설 확충을 위해 액화천연가스(LNG) 연료 수급과 화물 하역 동시 작업에 대한 영향평가 모델을 개발하고, 국가 친환경 인증제도 대상을 선박에서 기자재까지 확대하는 등 친환경 기반의 산업 생태계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.

'2024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'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(www.mof.go.kr)의 알림·뉴스-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"친환경선박 전환을 통해 강화되는 국제 탈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 국가 온실가스 저감목표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."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사안전국	책임자	과 장	이창용 (044-200-5830)
	해사산업기술과	담당자	사무관	이치경 (044-200-5838)

## □ 추진배경

- 「제1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(‘21~‘30)」\*에 따라 해수부는 친환경선박 ‘보급 시행계획’, 산업부는 ‘개발 시행계획’을 매년 각각 수립

\* 2030 한국형 친환경선박(Greenship-K) 추진전략(‘20.12.)

## □ 주요내용

◆ ‘24년 예산 2,422억원\* 투입 : 친환경선박 45척 건조 및 30척 설비개량 등

\* 국비 1,859억원, 지방비 434억원, 공공기관 129억원

## ①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

- (공공) 공공선박 친환경 건조\*(28척) 및 운항 중인 선박 친환경 개조\*\* (20척), 노후선박 건조계획 수립을 위한 상태평가(15척) 추진

\* 해수부 14척, 해수부 외(교육부, 부산항만공사, 수자원공사 등) 14척

\*\* 해수부 관공선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(DPF) 장착

- (민간) 친환경선박 건조(17척), 친환경설비 장착 시 대출이자 이차보전(10척) 및 국제규제 이행 컨설팅(80척) 지원

\* (선박건조) 내항선 7척, 외항선 10척 보조금 지원  
(설비장착) 외항선 10척 이차보전, (컨설팅) 외항선 80척 지원

## ② 연료공급 인프라 확충

- (LNG) 병커링·화물하역 동시작업 사고영향 평가모델 개발 등
- (무탄소) 전기추진 차도선 실증운항·최적화 작업, 육상전원 공급시설(AMP) 구축 및 액화수소 화물창 개념설계 추진 등

## ③ 친환경 선박시장 주도 생태계 조성

- (신기술 지원) 민간주도 형식승인제도 도입 추진, 친환경인증 대상확대(선박→선박+기자재), 국내 핵심기술 IMO 의제개발 등
- (운영체계) 선박수소연료전지 시험평가설비 개발, LNG 추진선박 탑승 선원 대상 시뮬레이터

**참고2**

**친환경선박 사진**



해양수산부 연구개발(R&D)을 통해 시운전('23.9) 중인 '전기추진 차도선'



친환경 공공선박(어업지도선, 하이브리드 추진), '24.1 인도